

원희룡 장관, “노후계획도시 재창조 위해 주민소통 강화”

- 9일 부천중동에서 주민들과 만나 간담회 진행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9일(일) 오후 2시부터 부천아트센터에서 주민들을 만나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한편,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.
 -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 9일 열린 「국토교통부장관-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」에서의 각 지자체장 방문 요청에 따라 3월 21일 고양일산, 26일 군포산본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, 노후 계획도시 주거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.
- 간담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원 장관이 정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.
 -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“노후계획도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말에 발의된 특별법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힘쓰는 한편, 실행력 있는 시행령 및 기본방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”고 설명하였다.
 - 아울러 원 장관은 “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주차난,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특색있는 도시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정책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간담회 종료 후, 원 장관은 중동신도시 내 노후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이동하며 주거실태를 직접 살펴본 후,
 - 노후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동역과 부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원미사거리 인근 “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” 현장을 함께 점검하여 부천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역할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.

2023. 4. 9.

국토교통부 대변인